

# 지역 수출 희비...광주 중심 수출 증가 건인

## 무협 광주전남본부 '9월 수출입동향'

전년동기비 광주 43.6% ↑ · 전남 3.6% ↓  
市 자동차·부품 선전...道 석유·선박 부진  
무역수지 각 7억3천만·5억6천만 달러 흑자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지만 두 지역 모두 무역수지에서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총수출액은 50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47억4천만 달러) 대비 7.3% 증가했다. 수입은 37억9천만 달러(1.7% 증가)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12억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광주의 수출액은 15억6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43.6% 급증했다.

이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덕분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고무제품(-20.1%), 완동기 및 펌프(-4.7%)를 제외하고 냉장고(12.0%), 자동차 부품(54.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43.5%) 등 주요 8개 품목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광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반도체의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자동차는 가솔린·디젤 차량을 비롯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은 전년 대비 107.3% 증가했고 자동차 전체 수출액은 6억4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48.8% 늘었다.

반도체 역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수출 상위 5개국 모두에서 실적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73.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의 수출은 35억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전남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제품(-6.2%)과 선박(-44.1%) 부문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는 국제 유가의 불안정한 흐름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농림수산물 수출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200.1%), 미역(6.3%), 기타 수산가공품(17.9%)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철강관의 경우 일본으로의 수출은 줄었지만 인도·튀르키예·브라질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1.0%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광주 7억3천만 달러, 전남은 5억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안태호기자



“날씨 쌀쌀” 신세계백화점 경량패딩 선풍  
광주신세계백화점 플레이스팟 ‘디스이즈네버댓’ 매장에서 22일 직원이 가법지만 보온효과가 뛰어난 경량패딩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AI 기술과 게임의 융합...광주서 세계가 주목

## GICON, 오늘부터 '2025 GGDC' 개최 40여 세션 구성...국내외 신기술 선풍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2025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GGDC)를 개최한다.

GICON은 22일 “23일과 24일 이틀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Game On! AI x Gwangju’를 주제로 ‘2025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초연설과 전문 강연이 이어지며 게임 개발자, 업계 종사자, 대학생, 일반 시민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GGDC는 수준 높은 40여개의 전문 세션으로 구성돼, 국내외 연사들이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해의 연사로는 미국 Swiftli Games and Consulting의 대표이자 전 Microsoft Xbox 소속이었던 Kimberly Swift가 기초연설을 맡는다.

또한 홍콩 Gamkersky 공동 창업자 Sun ZhongYuan, 베트남 GAMOTA의 CEO인 Vu Thi Trang 등이 참석해 글로벌 게임 산업의 흐름과 전망을 공유한다.

국내에서는 NX3GAMES, NC AI, 네오위즈, 위메이드,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호오버스, 넷마블엔비 등 주요 게임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경험과 AI 기반 게임 개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강연 주제로는 ▲유저 피드백이 MMORPG 개발 방향을 바꾸는 순간들 ▲AI 시대, 감성과 기술이 함께한 아이디어의 게임이야기 ▲VARCO 3D 활용 사례 ▲콩야 IP 리부트 전략

등 AI 및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세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게임부스 쇼케이스, 참여형 이벤트, 럭키드로우 등 부대행사도 운영돼, 산업 관계자뿐 아니라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행사로 진행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25 GGDC는 단순한 컨퍼런스를 넘어 국내외 게임 개발자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가 게임 산업 성장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 광주은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의료용품 키트’ 전달

광주은행은 최근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에서 임양진 광주은행 경영지원본부장과 배준열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의료용품 키트 전달식’을 열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용품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용품 키트 제공뿐만 아니라, 긴급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심리치료 등 다각적인 건강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보호 종료 이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고,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의료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월세 및 관리비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금융교육 제공 ▲광주은행 임직원 멘토와 함께하는 연극 뮤지컬 문화체험 등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정서적 안정,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임양진 광주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은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과 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열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본부장은 “광주은행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태호기자

여름철 폭염 운영질환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운영질환 예방 기본수칙**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무안군** 광고문의 : 062)650-2099